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011학년도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1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월 정기 임원회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이정훈 목사님(성실교회)을 모시고 사순절 예전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3월 1일(목) 오전 8시 30분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3월 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기재된 사항들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준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3/4 식 당 봉 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김세진 한기택 양상철 박재란  
 다음 주 설거지 : 이자애 이우엘 이나단 노준우  
 새 교 우 : 박성호(5남) 홍주희(7여) 최가람(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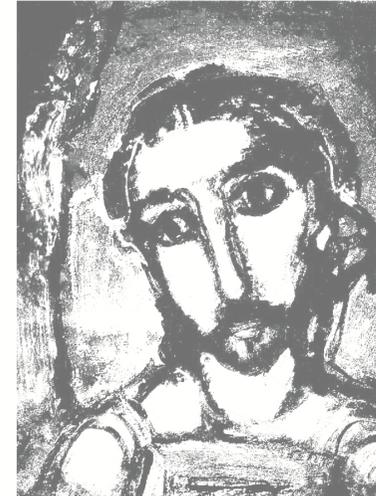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길에서 맞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생애와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 오는 이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의 뜻을 붙드셨던 예수님처럼,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극한 대립과 분쟁,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 아침 아픔의 소식이 가득한 신문을 대할 때면, 그 일들로 누더기가 된 주님의 가슴을 대하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님, 주님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하시고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순 김연실 김용진  
 박효선 구명자 권미숙 권혁순 박영신 김남종 오복순 김연실 김용진  
 류건형 김운수 박상호 김종락 박영신 김남종 오복순 김연실 김용진  
 송임회 이주은 박병구 김정애 박숙영 박시내 서수진 박인혁 오재영  
 정완수 윤성종 김윤정 이광섭 이정은 이종배 이주영 오재영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조정연 최윤희 한인철 한인철 권채영

### 감사헌금:

권혁신 박숙영 신영신 양상철 박재란 유혜경 이종현 이주영 오재영  
 전 응 정윤성 정종삼 최현선 무명4

###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손승우

### 녹색꿈헌금:

곽새롬 장동훈 정은선 무명3

장혜숙	백혜숙	송임회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김미순
최희영	최경미	이재문	김정자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옥순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정선희	조영순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배이순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김재광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증자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이서정
정영선	서정순	홍춘숙	서정기
박혜경	조향미	정현선	
김재흥	오자영	교회	
이범석	이근식	교회	
손성현	곽상준	교회	

마음으로 읽는 글

## 눈물 머금은 신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김노인은 64세, 중풍으로 누워 수년째 산소호흡기로 연명한다  
 아내 박씨 62세, 방 하나 얻어 수년째 남편 병수발한다  
 문밖에 배달 우유가 쌓인 걸 이상히 여긴 이웃이 방문을 열어본다  
 아내 박씨는 밥숟가락을 입에 문 채 죽어 있고,  
 김노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가 와서 두 노인을 실어간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거동 못해 아내를 구하지 못한,  
 김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 숨을 거둔다

아침신문이 탁하니 식탁에 뺏어버리고 싶은  
 지독한 죽음의 참상을 차렸다  
 나는 꼼짝없이 앉아 꾸역꾸역 그걸 씹어야 했다/ 씹다가 군소리도 싫어  
 씹어문드러질 손가락 던지고 대단스러울 내일의  
 천국 내일의 어느날인가로 알아서 끌려갔다/ 알아서 끌려가  
 병자의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들어 추슬러놓고  
 늦은 밥술을 떴다 밥술을 뜨다 기도가 막히고  
 밥숟가락이 입에 물린 채 죽어가는데  
 그런 나를 눈물 머금고 바라만 보는 그 누가  
 거동 못하는 그 누가/  
 아, 눈물 머금은 신(神)이 나를, 우리를 바라보신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적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뒤를 더욱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닦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사순절 예전에 대하여 이정훈 목사(성실교회)	마가복음 / 이범석 목사 기도 : 박성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곽권희 권사
	김기석 목사	장혜숙 권사	최현옥 집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범희 이근식 고숙이 박미영 신영신
	헌금위원	한상익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내 친구 이야기

내 친구 중에 팔자가 좋기로 소문이 난 이가 있다. 유복한 집에 태어나 고생 모르고 사랑만 받고 자라서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성공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 똑똑한 자녀의 존경받는 어머니로 지금까지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노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팔자까지 들먹여가며 그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환갑이 될 때까지 손수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노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데 있다.

워낙 잘사는 집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늘 부리는 사람이 따랐다. 가정부를 식모라고 업신여기던 시절에도 그의 집에 가면 웬만한 집 새댁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식모가 입에 혀처럼 바지런하게 시중을 들고, 식모가 한 음식이 예전 대갓집 찬모의 솜씨처럼 맛깔스럽고 고급스러웠다. 우리의 6, 70년대는 식모가 흔할 때였지만 그만큼 살림이 번잡스러울 때여서 내 친구의 경우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했다.

식모가 가정부로, 가정부가 가사 도우미로 격상된 후까지도 그 친구는 여전히 사람 부리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유지하더니 90년대로 들어서기 전 맞이한 만며느리는 또 어찌면 그렇게 유능한 살림꾼인지, 그의 팔자는 정말 죽는 날까지 빗자루 한번, 행주 한번 안 들고 말 것 같았다.

그러나 만아들이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자 노부부만 커다란 집에 달랑 남게 되었다. 그 밑의 자녀들은 그 전에 외국에 나가 있었다. 영감님의 수입도 예전 같지 않은지라 시간제 파출부를 쓰기로 했다. 그러나 여지껏 일 잘하는 사람만 부려보던 친구 눈에 드는 파출부란 없었다. 게다가 평생 일이라곤 모르는 몸은 어찌나 허약한 지 파출부 없는 시간의 가사 노동만으로도 몸이 안 쭈시는 데가 없었다.

사흘이 멀다 하고 갈아들이는 파출부 중에서도 가장 일 못하는 파출부가 걸린 날이었다. 겨우 시간만 채우고 너도 틀렸다, 싫어 소정의 수고비나 주어 보내려는데 이 파출부가 현관에서 미적미적 가치를 앓았다. 뭐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언제 또 올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매달리듯 절박하여 차마 그만 오란 소리를 못했다. 두 번, 세 번 오는 날이 거듭돼도 일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일을 못하면서 파출부로 나선 게 뻔뻔스럽다 싶으면서도 그만두란 말을 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만 것은 그 파출부 한 사람의 어깨에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들의 밥줄이 걸려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나의 팔자 좋은 친구는 벌써 몇 년째 그 파출부를 단골로 쓰면서 이제는 칭찬이 자자하다. 그 파출부가 그동안 일을 잘하게 돼서가 아니다. 여전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여기저기 안 흘려놓은 데가 없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것이다. 내 친구는 그 일 못하는 파출부에 의해 처음으로 자기가 이 집안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다.

아아,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요새 그 친구는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그 친구의 때늦은 자기 발견은 그보다 앞서 일 못하는 파출부한테서 놀라운 쓸모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안목이야말로 그 친구의 가장 좋은 점, 연민의 정이 아니었을까.